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30장

요절: 창세기 30:22,23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공부하였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베엘에서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던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과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란에서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들딸 낳고 부모님 모시고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란에서의 생활은 야곱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얻는데 무려 14년을 투자해야 했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또 6년을 보냈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살이,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이 20년 하란생활은 죽어라 고생만 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엘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28:15)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넘치게 아내도 4명, 아들도 12명, 거기다가 두 떼나 되는 가축을 이끌고 귀향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란에서 힘든 생활을 통해서 강한 자아가 깨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품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인생 열매가 그의 노력과 성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과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의 땅(하란)에 있는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우물은 전에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처음 만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때 마침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6절에 보면 라반의 딸 라헬도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 우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딸인 것을 알고 그를 붙들고 입 맞추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듯이 고생고생하며 600km 를 샌달을 신고 걸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외삼촌의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11). 어머니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라헬이 예뻐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포옹하고 입 맞추며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아버지 라반에게 인도하였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결혼문제를 부탁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과 약속한 기한이 차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년을 봉사한 후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떨렸겠습니까? 라반은 이런 야곱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못먹는 술까지 잔뜩 먹였습니다. 마침내 첫날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옆자리에 누워 있는 여자가 당연히 라헬일 줄 알고 다정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 보았습니다. “라헬? 나의 사랑하는 라헬~”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아눕는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주여! 제발 꿈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옆자리 누운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로 그 이름의 뜻이 cow ‘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레아는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얼굴과 몸매를 가꿀 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눈이 악하다고 했는데 총기와 생기가 부족함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안 생긴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쁘게 생긴 라헬에게만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천하의 야곱이, 그 치밀한 야곱, 사기꾼의 천재 야곱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사기가 아니라 결혼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당장 라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지금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쩍이나이까?” 그러나 라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네. 정 자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하게. 싫으면 관두고” 정말 라반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꼼짝없이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반은 딸들을 미끼삼아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같이 부려먹은 것입니다. 야곱은 원통하고 분해서 속이 쓰렸을 것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여~ 좋아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외삼촌과 속이기 대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라반을 속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여 떼를 이루도록 충성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29,30)

야곱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부를 바꿔치기 한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라반은 깜깜한 밤에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처럼 꾸며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전에 형 에서처럼 자기를 꾸며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였습니다. 자신이 속였던 방법대로 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너무나 밍고 억울했지만 자기도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깊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는

이때만 살짝 넘어가면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축복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야곱이 심은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과 아버지 이삭의 배신감을 철저히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가 열국의 아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잔머리 굴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중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고 단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라반 밑에서 부인을 바꿔치기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품삯도 수없이 착취를 당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철저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는 라반이 너무나 알미웠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좋은 훈련코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사는 날 동안 요소요소에 나와 꼭 닮은 훈련관들을 배치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의 약점과 죄 문제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대상이 직장의 상관일 수도 있고 가족의 식구일수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일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피할 수 없는 훈련관들이 우리도 이들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질 것은 깨지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에게 앙심을 품고 머리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은 라반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7년을 더 봉사함으로 14년간 양치는 훈련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면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쓰실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훈련을 젊은시절 잘 받아서 열매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청년부시절 영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외면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외면하고 피해다니면 훈련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할 때, 결혼을 하고 난 후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보고 일찍 훈련을 받을 것인데 후회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훈련은 결코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동안이나 뱅뱅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뱅뱅이 훈련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의 내적성장을 위한 훈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라반처럼 우리를 훈련하고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신이셔서 그렇습니까? 히 1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아들, 딸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나니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지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범죄함으로 부끄러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평생 자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 자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삼하 7:14,15) 우리가 훈련을 잘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열매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먼저 레아와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라헬에게만 들꽃 백송이를 꺾어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항상 라헬과 함께 하고 카톡 프로필도 라헬과 찍은 사진만 올렸습니다. 첫 아이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아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31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로 라헬의 침실에 들었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레아의 방에는 아주 가끔씩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턱턱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 명의 아들들을 연속해서 낳게 하심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이름 지는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서러워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시므온은 '들으셨다' 뜻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셋째, 레위는 '연합하다' 세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남편과 자신이 연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하나씩 낳을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주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이고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방에 들어와서는 아이만 안아 주고 아내에게는 따뜻한 한 마디 말도 시선 한번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라헬의 방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까맣게 탔겠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동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든 내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름을 유다, 즉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로 지었습니다. 레아의 신앙은 남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 낳지 못한 문제를 주로 남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30:1절을 보십시오. 라헬은 날마다 야곱에게 바가지를 굶어댔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언니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에서 스코어가 4:0 으로 벌어지자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이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날마다 야곱만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야곱도 화를 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투정하면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런 여자 때문에 14년을 봉사했다니... 제정신이 아니었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녀 빌하에게 들어가게 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보십시오. ‘단(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아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언니를 시기해서 지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라헬은 마침내 어저지로 스코어를 4:2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어, 너만 몸종 있냐? 나도 있어” 하면서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다시 6:2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어머니에게 추석선물로 드릴려고 가져왔습니다. 합환채는 고대에서 임신촉진제로 쓰이는 약초였습니다. 레아나 라헬 모두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합환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라헬이 언니에게 합환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며 하룻밤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사고 팔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환채를 삶아먹는 라헬은 여전히 자식이 없고 생산이 멈추었던 언니 레아는 하룻밤 야곱과 자고 나더니 또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언니 레아는 남편과 손만 잡아도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레아는 아들 둘과 딸 하나까지 보란 듯이 낳아서 스코어를 단숨에 9:2로 벌려놓아 버렸습니다.

이때 라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라헬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자식문제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비로소 깨닫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라헬이 두손 두발 다 들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22,2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은 드디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말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합환채까지 형에게서 빼앗아서 별 수를 다 써 보았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놓고 ‘내 남편’이라 주장하며 끝없이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고 싶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남편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경쟁하고 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가 인간 남편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남편이 되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로해주시고 참 만족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그들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 받는 여인이었고, 출애굽의 기초를 놓은 요셉의 어머니가 되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슬픔과 동생과의 비교의식, 시기심으로 고통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성숙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막벨라 굴에 야곱과 같이 묻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잇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불안정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가지로 굶고 싶지 않는데 굶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기하고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이 우리의 참 남편이시요, 위로자이시요,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인해 남편과 아내, 동역자들,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 양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을 덧입고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아름답습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의 스토리인데... 조상들이 야곱과 네 아내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다툼과 경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고자 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속임과 다툼과 경쟁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서 장자 르우벤은 나중에서 모 빌하와 통정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주동이 되어서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엽기적인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진흙탕과 같은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열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함을 메꾸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훌륭해서 내가 잘한 일만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실수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너무 절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리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떠나면 그에게 큰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야곱을 붙들어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엉뚱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양과 염소떼들이 새끼를 낳 때에 아롱진 것과 점있는 것이 나면 자기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아주 불리한 계약조건이었습니다. 양은 대부분 흰 양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 흑염소였습니다. 양들이 새끼날 때에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얼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롱진 새끼들이 아롱진 어미에게서 나기 때문에 아롱진 어미들을 사흘길이나 되는 자기 아들들 집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라반은 정말 교활한 갑질 고용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양들을 쳐본 결과 한 가지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관계를 할 때에 시신경을 자극하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얼룩무늬 새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멘델의 법칙을 뒤집는 야곱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도 양계장에서 닭들이 계속해서 계란을 낳도록 24시간 불을 켜 둡니다. 이렇게 닭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닭들이 계란을 1.5배나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잘 자랍니다. 이런 생물학적 비밀을 야곱은 이미 수천년 전에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관계를 할려고 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평나무 가지들을 흔들어서 열심히 양들의 시신경을 자극하였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안맞는것 같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력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점박이 양들이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비실비실한 양들이 다가오면 가만히 놔둬서 흰색양을 낳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튼튼하고 실한 새끼양은 모두 점박이로서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새끼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43).

그러나 야곱이 이처럼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의 노력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31:11-1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과 관계하는 수양들은 모두 점박이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전날 야곱에게 계시를 통해서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물질과 재산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이용해 먹고 끝까지 작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훨씬 불리한 계약조건을 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유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무껍질을 벗겨 튼튼한 양을 얻고자 했지만, 이런 야곱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야곱은 불합리한 계약 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까? 회의하고 염려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소원을 가진 한 명의 양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을학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리 세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가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갑질하는 라반 밑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약속하신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강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잠3:12). 목자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속이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셔서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성품을 덧입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라반에게 속아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사 두 떼나 되는 많은 가축을 얻어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네 아내와 열두 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열두 지파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늘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하신대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끈끈이 믿음의 길을 가므로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